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6.137>

JCCT 2024-11-17

인성교육 방향 탐색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Focusing on the 1st and 2nd Comprehensive Plans for Character Education

윤옥한*

Yoon Ok Han

요약 입시교육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도 더욱 부각 되었다. 인성교육은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의미는 첫째, 제1차와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 비전이다. 둘째,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이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인성교육, 인성교육 계획, 인성교육 정책, 인성 교육법

Abstract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along with the problems of entrance exam education, has greatly changed modern society, making the importance of character education more prominent. Character education refers to education that cultivates not only skills and knowledge but also personal ethics, values, and soci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meaning of the 1st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16-2020) and the 2nd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21-2025)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based on them.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is as follows: Firs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the vision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Both have a vision of fostering democratic citizens equipped with the character and competence to lead future society. Second, there are five tasks for the 1st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 (2016-2020) and four tasks for the 2nd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 (2021-2025). The direction of character education presented, centered on thi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character education program certification system. Second, character education is not something that only schools do.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among all institutions, such as home, school, education office, local community, and the country.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entrance exam system and the evaluation system to ensure that character education is implemented properly. Fourth, character education has been carried out through moral subjects. The core of character education in schools is the need to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other subjects in addition to moral education.

Key words : Character Education, Character Education Plan, Character Education Policy, Character Education Law

*정회원, 국민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제1 저자)
접수일: 2024년 8월 9일, 수정완료일: 2024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4년 11월 7일

Received: August 9, 2024 / Revised: September 7, 2024

Accepted: November 7, 2024

*Corresponding Author: okaiyoon@kookmin.ac.kr
Dept. of Education, Kook min University, Korea:

1. 서론

인성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중요한 교육이다. 최근에는 인성교육의 문제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회 곳곳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인성교육 부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입시와 학교 교육의 역할이다[1]. 학교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큰 문제 중 하나가 과도한 성적 경쟁과 스트레스이다. 학교 교육은 성적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학생들은 성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느끼게 되며, 학습의 즐거움보다는 성적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는 주된 방법이 표준화된 시험이다. 이러한 평가 체계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과 창의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며, 학생들이 단순히 시험 성적을 얻기 위해 공부하는 경향을 높일 수 있다[2].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기술과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학교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일선 학교 현장에서 교육혁신은 주요 과제 중 하나이다[3]. 오늘날 학교 교육에서 해결해야 할 큰 과제 중 하나가 입시교육 문제이다. 입시교육은 많은 국가에서 교육 시스템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입시를 통해 대학 진학이 결정되는 경우, 학생들은 과도한 경쟁과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한 압박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목표가 입시에 성공하기로 초점이 맞추어지면, 학생들은 지식 습득보다는 시험 대비를 중요시하게 되어 정말로 배움을 추구하는 동기가 상실될 수 있다[4]. 이 외에도 입시를 위한 문제 유형에 대한 반복적인 연습으로 인해 학생들이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강조하게 되며,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이 억압될 수 있으며, 입시 경쟁에서는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이 지나치게 학습 도우미나 성적 향상을 위한 도구로 간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자율성과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들로 인해 입시교육은 학생들의 발전과 교육 체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입시교육의 문제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은 현대 사회를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인성교육의 중요성

도 더욱 부각 되었다. 인성교육은 기술과 지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윤리, 가치관, 사회적 책임감 등을 함양하는 교육을 의미한다[2].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기본적인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성장 기간 중 하나이다. 이 기간에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 예를 들어, 존중, 인내, 협력, 책임감 등의 가치를 배우면 학생들은 사회에서 더 나은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적응과 협력 능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공간이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타인과의 존중과 협력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며, 효과적인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해 사회 내에서 더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셋째, 도덕적 판단력을 육성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도덕적인 선택을 내리고 윤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공간이다.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윤리적 딜레마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며,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도덕적 판단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문제 해결과 자기 계발 능력을 강화한다.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를 개발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 도움을 준다. 비판적 사고, 창의성, 목표 설정 등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미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된다. 다섯째, 폭넓은 시야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게 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게 된다. 인성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며, 세계 시민으로서의 시야를 확장할 수 있다. 여섯째,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갖게 한다. 학교에서는 학업과 사회적 압박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생들에게 스트레스 관리, 감정 조절, 자기 관리 등의 능력을 가르쳐주어 정신 건강과 삶의 활력을 갖게 한다.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인성교육은 학생들이 지식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 사회적 기술, 자기 발전 능력 등을 통해 더 적극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교육기관들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에서도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2013년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2013년 제1회 인성교육 프로그램 평가 인증제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모델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양질의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실제 교육 현장에 확산·실행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인성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5]. 그 이후 인성교육이 더욱 강조되면서 인성교육진흥법이 법률 제13004호, 2015년 1월 20일 제정되고 2015년 7월 21일 시행되었다.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성교육 연구 동향 분석, 인성 구성 요인 분석, 인성교육의 덕 교육적 접근과 실천 원리에 관한 연구가 있다[5-7]. 또한 교과별 인성교육 내용 분석을 통한 인성 함양 교육과정 총론 개발 방향 탐색, 시민적 인성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의 조화 가능성 탐색, 인성교육진흥법에 제시된 인성교육의 목표에 대한 고찰이 있다[8-10]. 그리고 인성의 의미와 인성교육의 과제, 인성교육진흥법에 대한 언론 평가 분석,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성교육의 방향등이 있다[11-13]. 그러나 인성교육 종합계획과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인성교육진흥법과 인성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문제 제언 정도이다[14].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 고찰 및 이론적인 분석을 위해 교육부 인성교육과 관련된 정책문서 및 인성교육 관련 논문 등 다양한 문헌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학술 자료에서 인성교육이란 단어를 통하여 논문 35편을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논문은 총 28편이 사용되었다.

III. 인성교육 종합계획 의미 분석

인성의 개념은 character(품성)와 personality(인성)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성교육의 방향은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인성교육의 방향이 결정된다[15]. 인성교육진흥법이 2015년 1월 제정되고 2015년 7월에 시행되었다. 인성교육 법 제

2조 제1항에서 인성교육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인성교육”이란 자기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2항에서는 핵심 가치·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제3항에서는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덕목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인성교육 법 제6조(인성 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①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인성교육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성 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 이후 정책연구,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하여 2015년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방안이 연구되고 2016년 1월에 인성교육 진흥위원회 시안 심의를 통하여 확정 발표하였다[16].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의 역량으로서 인성 함양이 필요하다. 상호연결성이 커지고 정보량이 급증하는 미래 사회에는 상대방을 존중·배려하면서 소통하는 인성 덕목이 필수적이다. 혐오범죄, 기후변화 등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인성 가치·덕목의 내면화가 필요하다. 원격수업 등 비대면 소통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존중 등 새로운 이슈와 접목될 수 있는 인성교육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17].

국가 인성교육 계획은 2016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을 발표하였고,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 제1차와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 비전이다. 인성교육 목표의 경우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자연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으로 제1차에서 제시한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에서 한 걸

음 더 나아가 자연을 포함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제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비교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비전과 목표[16, 17]
Table 1. Vision and goals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구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16-2020)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비전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가정, 학교, 사회와 함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 있는 사회참여를 위한 시민적 인성의 함양 • 타인, 공동체, 자연을 존중·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①학생의 인성을 가꾸는 학교 생태계 조성, ②인성교육 중심 교육과정 운영 정착, ③학교 인성교육 지원체계 활성화를 세부 과제로 하고 있다. 둘째,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추진이다. 이를 위해 ①학생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활용, ②인성 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내실화, ③예술, 체육, 인문 등 인성 주제별 교육 활성화를 추진한다. 셋째,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①교원을 인성교육 선도적 주체로 육성하고, ②교사 공동체의 참여와 자긍심을 조성한다. 넷째,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계 구축한다. 이를 위해 ①가정의 인성교육 기능을 회복하고 ②지역사회의 인성교육 참여 지원을 강화하며 ③범부처 인성교육 지원 협력을 강화한다. 다섯째,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①인성교육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개선하고 ②인성교육 공감대를 확산한다[16].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이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이다. 이를 위하여 ①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기초한 인성교육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인성교육 관련 국가 수준

교육과정 체계화 및 내실화,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에 인성교육 관점 반영(교육청),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 계획 수립·실시(학교, 유치원), ②학교·교원의 인성교육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하여 교원의 자발적인 인성교육 역량 강화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인증제 운용(교육부), 예비 교원의 인성교육 지도 역량을 강화(교원 양성기관)한다. ③주제별 인성교육 활성화·체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인성 함양(교육부, 문체부), 예술 교육을 통한 감성 및 정서 함양(교육부, 문체부),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 소양 교육 및 진통문화 교육 활성화, 소통과 갈등 해결을 위한 매체 이해력 교육(교육부, 방통위, 문체부),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의 건전한 인성 함양(교육부), 심성 순화 및 준법 의식 향상을 위한 법 교육(법무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교육부, 환경부),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교육부, 환경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는 동물 보호 교육(농림축산식품부), 청소년의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한 인성 함양(교육청, 학교)한다[17].

둘째,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이다. 이를 위하여 ①민주적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이를 위해, 학생이 기획하고 실천하는 학생 자치 확산,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②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동체 활동 및 또래 활동을 통해 비폭력·상호 이해와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 주도적 언어문화 인식 제고 및 언어폭력 예방 활성화, 학생 주도의 자율적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활성화를 통해 폭력 인지 감수성 향상 및 단위 학교 사이버폭력 예방 역량 강화, 장애 학생·다문화 학생 인권 보호 및 존중 문화 조성(교육부), 교사·학생 상호 간 소통에 바탕을 둔 교육활동 존중 문화 조성(교육부)한다[17].

셋째,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추진한다. ①가정에서의 인성교육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학부모의 자녀 인성교육 역량 강화,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②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 인성교육 진흥협의회” 등 지원체계 구축·운영(교육청), 민간의 사회적 공헌, 마을의 교육 참여를 통한 인성교육 환경 조성한다. 넷째,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을 추진한다. ①인성교육 관

련 법령 정비, ②인성교육 정책 평가·환류 절차를 정비한다[17].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과제를 비교해 보면 표 2와 같다 [16, 17].

표 2. 제1차,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과제
 Table 2. Tasks of the 1st and 2nd 5-year comprehensive character education plans

구분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	2021년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
추진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

IV. 인성교육 방향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 법 제12조(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인증)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① 교육부 장관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인성교육 과정을 개설 운영하려는 자(이하 “인성 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인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성교육 과정의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인성 교육프로그램개발자 등은 교육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 과정이 교육내용·교육 시간·교육과목·교육시설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인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 과정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또는 인성교육 과정에 대하여 제4항의 인증표

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성교육은 사회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책임감, 협력, 공감 능력 등의 인성적 가치를 키우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평화로운 협업과 번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증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가치를 더 확실하게 배울 수 있으며, 인증제를 통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일정한 기준과 품질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이는 학습자, 교육기관, 부모 등 모두에게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제공하며, 선택과 운영 단계에서 더 확고한 기준을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인성교육은 직업 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채용 단계나 직장 내에서는 의사소통 능력, 지도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인성적 요소가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 인증된 과정을 마친 학습자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보유하게 되어 직업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데이터 기반으로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지속해 품질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인증을 받으면 학습자들은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다[18]. 이는 학습자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보다 맞춤형 교육 경로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활용함으로써 학습자의 성장과 사회적 가치 제고를 촉진하며, 신뢰성을 확보하고 직업 기회를 확장하는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인성교육은 단순히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환경과 기관이 함께 협력해야만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1, 2]. 이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인성교육은 개인의 인격과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종합적인 분야이다. 이는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문화 등 여러 영역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양한 영향을 조화롭게 결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②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등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일관성 있는 인성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받는 교육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모순된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인성교육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③인성교육은 지속적인 학습과 반복이 필요한 영역이다. 학교에서만 한정적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가르치기 어려우므로, 가정, 지역사회, 교육청, 국가 등 다양한 기관이 연계하여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④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폭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편견을 줄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⑤각 기관은 자체적으로 다양한 자원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자원과 전문성을 공유하고 협업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구현할 수 있다. 자원의 중복 사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⑥인성교육의 목표 중 하나는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기반으로 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함께 노력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요약하면, 인성교육은 다양한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4].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현재의 입시 및 평가 제도는 지식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 그 결과 학생들은 시험 성적에만 치우쳐 학습하고, 인성, 윤리, 의사소통 능력 등의 중요한 부분이 간과되거나 충분히 평가되지 못할 수 있다. ②입시제도와 평가가 너무 성적 중심이면 다양한 학생들의 잠재력과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수 있다. 인성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능력을 정확히 반영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정성을 확보하는 입시 및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 ③인성교육은 학생의 성장과 발전을 중요시하는데, 단순한 지식 평가만으로는 이러한 성장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 인성과 태도 등의 요소를 반영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생의 실제 성장을 확인하고 격려할 수 있다. ④인성교육의 목표는 학습자가 실생활에서 윤리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는 지식만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얼마나 잘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⑤평가 결과는 교육 방향성을 조절하는 데 영향을 준다. 만약 인성과 태도

를 평가하는 척도가 없거나 무시된다면 교육기관들 사이에 덜 집중하게 될 수 있다. ⑥평가와 입시 과정에서 인성과 태도를 고려하면,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인성교육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려는 동기를 갖게 된다. 요약하면, 인성교육의 목표와 원칙을 제대로 반영하고 학생들의 실제 성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와 평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지식뿐만 아니라 인성과 태도 등의 중요한 부분을 평가하며, 다양성과 공정성을 존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자들의 포괄적인 능력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각 교과의 특성이 있지만 모든 교과에서 인성교육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덕 교과 외 다른 교과 활동을 통해 알게 된 가치나 규범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고 체험시킬 필요가 있다 [19]. 이러한 측면에서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추진 과제 4가지 즉,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을 재개로 실행만 충실히 수행하여도 어느 정도 인성교육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V. 결론 및 제언

최근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 각국이 교육정책이나 실천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인성교육이다. 인간은 저절로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되거나 실천적 지혜를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평생 노력해야 함은 물론 도덕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가정과 학교는 인성교육에서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형식적 교육이 이루어진 이후로 교육의 가장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 때문이다. 그 중 핵심적인 부분이 대학 입시 위주 교육 때문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

(2016-2020)과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의미를 탐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인성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인성교육 종합계획의 의미는 첫째, 제1차와 제2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의 비전은 큰 차이가 없다. 둘 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인성 역량을 갖춘 민주 시민 양성이 비전이다. 인성교육 목표의 경우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에서는 자연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다. 타인과 공동체, 자연을 존중 배려하는 도덕적 인성의 함양으로 제1차에서 제시한 가정, 학교, 사회, 공동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연을 포함함으로써 인성의 범위를 확장한 것이 특징이다. 둘째, 제1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16-2020)의 추진 과제는 5가지, 학교 교육 활동 전반을 인성 친화적으로 변화, 학생의 인성을 깨우치는 교육 활성화, 교원의 인성교육 역량 확산 지원, 가정 학교 사회의 연계 지원체제 구축, 대 국민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확산이고,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2021-2025)의 추진 과제는 4가지, 학교 교육과정 내 인성교육의 안착, 인성교육 친화적 학교 환경 조성, 가정·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제도 및 평가·환류 개선이다.

이를 중심으로 제시한 인성교육의 방향은 첫째,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성교육은 학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 국가 등 모든 기관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인성교육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 개선 및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인성교육은 그동안 도덕 교과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 학교 인성교육의 핵심은 도덕과 이외의 다른 교과 교육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J. Hun, "The importance of guidance for at-risk students and character education,"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2013.
- [2] Y. H. Kwan, "The School Violence & the Direction of Education of Ethics," *The Korean Society for Moral & Ethics Education*, Vol. 38, pp. 1-26, 2013.
- [3] Y. J. Kim, R. H. Kwon, "Design of Convergence Roadmap for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he Duksung IIRUM Personality Education Curriculum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 Alternatives for Educational Innovation,"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7, No. 3, pp. 79-87, 202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79>
- [4] H. Lee, "How to improve the college entrance exam system?", *Educational Review*, Vol. 39, pp. 240 - 286, 2017.
- [5] O. H. Yoon, "Research Trends in Character Education : Focusing on KCI Articles Published in Korea in 2010-2015,"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14, No. 2, pp. 1-23.
- [6] O. H. Yoon, "Analysis into Factors for the Personality Forma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15, pp. 365-382, 2018.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15.265>
- [7] B. Y. Y, "A Study on Virtue Education Approach and Practical Principles in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Vol. 26, No. 1, pp. 303-322, 2015. UCI I410-ECN-0102-2015-300-002080648
- [8] Y. S. Min, H. S. Choi,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national curriculum of character cultivation education through Contents Analysis of Subject Character Educ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8, No. 6, pp. 829-847. 2018. <http://dx.doi.org/10.22251/jlcci.2018.18.6.829>
- [9] Y. D. Youn, "What is the Civic Character? :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Saramdaum Education* Vol. 13, No. 3, pp. 127-142. 2019. DOI : 10.18015/edumca.13.3.201912.127
- [10] B. R. Lee, "A Study on the objectives of humanity education presented in the humanity education promotion Act,"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22, No. 5, pp. 475-504. 2017. <http://dx.doi.org/10.20437/KOAECE22-5-20>
- [11] E. S. Choi, "The Meaning of Character and the Task of Character Education," *The Journal of moral Education*, Vol. 29, No. 3, pp. 29-54, 2017. <http://dx.doi.org/10.17715/jme.2017.9.29.3.29>
- [12] J. Y. Hur, "An Analysis on Newspaper Evaluations of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Act," *Journal of Human Rights & Law-related Education*, Vol. 8, No. 3, pp. 175~199, 2015.
- [13] K. H. Kim, "The Direction of Character

- Education in the 2022 Revised Curriculum, *Journal of Ethics*, Vol. 1, pp. 51-73, 2022.
<http://dx.doi.org/10.15801/je.1.136.202203.51>
- [14] Y. S. Jung,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Character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Comprehensive Plan for Character Education - Regarding the Revision of the 2022 Curriculum,"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history*. Vol. 71, pp. 303-339, 2022.
- [15] O. H. Yoon, "Exploring the Direction of Christian Character Education in the Postmodern Era," *Theology and Praxis*, Vol. 84, pp. 617-642, 2023. <http://dx.doi.org/10.14387/jksph.2023.84.617>
- [16] Ministry of Education, "The 1st Personality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16-2020),"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16.
- [17] Ministry of Education, "The 2nd Personality Education Comprehensive Plan (2021-2025),"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2020.
- [18] J. Y. Yeon, J. Y. Ahn, "Analysis of Perceptions of Character Education Certification Programme on S University,"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Vol. 11, No. 6, pp. 1539-1553, 2020. DOI 10.22143/HSS21.11.6.109
- [19] Y. J. Lee, E. J. Park, Y. D. Yoon & C. H. Kim, "The Focus and Main Contents of the 2022 Revised Moral Education [Ethics and Thought] Curriculum - Focusing on the second research process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Journal of Ethics Education Studies*. Vol. 67, pp. 1-36, 2023. UCI I410-ECN-0102-2023-300-001171172